

広島大学学術情報リポジトリ
Hiroshima University Institutional Repository

Title	일진회와 그 연구사에 대하여
Author(s)	TOKUMA, Hajime
Citation	Hiroshima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the humanities , 19 : 40 - 47
Issue Date	2024-03-31
DOI	
Self DOI	
URL	https://ir.lib.hiroshima-u.ac.jp/00055633
Right	
Relation	



일진회와 그 연구사에 대하여

德間 一芽 (토쿠마 하지메)

히로시마슈도대학 한국어 강사

논문초록 : 이른바 '친일' 단체로 알려진 일진회 (一進會) 는 20 세기 초 한반도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 단체였다. 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에 '친일'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일진회가 종종 민족주의와 함께 나타나듯이 일진회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일진회에 대한 개요와 선행연구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주제어 : 일진회, 동학, 친일, 대한제국기, 한국 병합

I. 개요

I.1 조직 개요

(1) 결성

일진회는 독립협회 (獨立協會) 전신인 유신회 (維新會) 와 동학 교도를 기반으로 한 진보회 (進步會)¹⁾ 가 1904 년 12 월에 합동하여 결성된 단체이다. 유신회 설립은 송병준 (宋秉峻) 이 조언, 계획한 것이며 진보회는 이용구 (李容九) 가 손병희 (孫秉熙) 에게서 설립을 위탁 받은 것이다. 유신회는 윤시병 (尹始炳) 이, 진보회는 이용구가 회장을 맡았다가 일진회 합동 후에는 먼저 윤시병이 회장을 맡은 다음 이듬해 12 월부터는 이용구가 회장이 되었다.²⁾

(2) 정치적 주장의 내용

합동되기 전 양 단체의 주장으로부터 살펴보자. 우선 진보회의 주된 목적이 '開明' 이고, 정부의 횡포에 반대하며, 현재의 진보회는 이전의 동학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체포된 회원들의 석방을 요구하였다.³⁾ 한편 유신회는 정부의 실정을 비난하기 위해 "정부 탐관오리의 횡행, 용병의 무익함, 惡弊亂發의 악영향"⁴⁾ 을 비판하는 취지서를 제출한 후 '四大綱領' 을 정부에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 네 가지로 정리되었다. 1. 황실을 존중하여 국가의 기초를 견고히 할 것. 2.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 3. 정부는 시정 개선을 시행할 것. 4. 군정과 재정을 정리할 것. 이와 같은 요구는 당시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방안이었다.⁵⁾ 이러한 반정부 성향 때문에 한국 정부로 말미암아 극히 탄압을 받았다. 한편 합동되기 전의 양 단체는 정부 및 지방 관청으로 항의 문서를 계속 보냈다. 하야시 유스케 (林雄介) 의 통계에 의하면 1904 년부터 1909 년 사이에 208 건의 항의 문서가 제출되었다.⁶⁾ 또한 유신회와 진보회 합동에 앞서, 유신회에서는 회원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그리고 진보회에서는 동학이 '排日' 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각각 일제히 斷髮이 행해졌다.⁷⁾ 진보회가 합동을 추진한 것은 유신회의 '四大綱領' 의 주장이 진보회의 주장과 겹치기 때문이었다.⁸⁾

(3) 조직의 형태와 규모

일진회의 조직은 중앙과 지방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서는 道에 支部會 (1905 년 9 월 이전에는 支府) 를 두었고, 郡에 支會가 설치되었다. 하야시의 조사에 따르면 支會는 전국적으로 조직

되었는데 특히 황해도, 평안도, 함경남도에서 조직률이 높았으며, 반면 경상도, 전라남도, 함경북도 등에서는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⁹⁾ 6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회원 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지만, 적어도 10만 명 이상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⁰⁾ 당시 한국에서 설립된 다른 단체와 비견할 여지가 없을 정도 규모가 큰 단체였다.¹¹⁾

(4) 회원의 구성

다음으로 회원 구성을 살펴보면 유신회는 원래 서울의 일부 지식인들의 조직에 불과했으나 동학이라는 종교적 결속을 가진 진보회와 합당한 후 전국적인 조직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때문에 인적 구성이 약간 복잡하지만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¹²⁾가 정리한 侍天教의 네 가지 유형을 참고하여 이것을 일진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1) 동학의 종교적 기초에 근거한 정치 활동에 종사한 사람이며, 종교 활동과 정치 활동을 양립한 대다수 농민들 (2) 종교적 관심이 거의 없는 ‘浮動層’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며 이권을 얻기 위해 일진회로 접근한 사람 혹은 관직을 얻기 위해 입회한 사람으로, 일진회에 대한 소속감이 약한 사람. 따라서 자신이 불리하게 될 경우 탈퇴할 것을 주저하지 않은 사람들 (3)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종교 활동에 전념한 사람. 이상 세 가지 층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회원 구성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었으며 (1)은 상반기, (2)는 후반기에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I.2 활동 개요

일진회는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서는 일본과 관련된 정치 활동에 한정시키며 주요 활동의 개요를 연대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일본군과의 전쟁 협력

초기 일진회와 일본의 협력으로 대표적인 것은 러일전쟁 당시의 두 가지 협력을 들 수 있다. 하나는 경의철도 부설이다. 일본은 신의주와 서울을 잇는 군용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사역하며 사업을 시행해 왔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진회는 이 공사에 협조하고자 190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인부 13만 명을 동원하였다. 또 한 가지는 “北進輸送隊”이다. 이는 일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한 병력 수송, 물자 운반, 敵情 정찰, 군량 공급 등을 나서서 떠맡은 것으로, 늦어도 1905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에 11만 명 이상이 파견되었다.¹³⁾ 이와 같은 일본군 지원으로 회원들은 쥐꼬리만 한 임금을 받았지만,¹⁴⁾ 이마저도 일본에 군사비로 기부되었다.

(2) 보호조약 찬성 선언서와 일진회의 분열

제 2차 한일조약(이하, 보호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인 1905년 11월 6일에 일진회는 이를 지지한다는 취지의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이 시기 간부 간의 의견 차이로 말미암아 일진회는 분열되고 말았다. 일진회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지방에서는 회원들이 악행을 거듭하고 있었고, 나아가 일진회가 보호조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으므로 일진회에 대한 조선 민중들의 반감이 강화되었다. 이에 손병희는 지방지부를 폐지하고 중앙본부만 남길 것을 제안했으나 이용구 등은 단체를 해산하면 정부가 압박을 가할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1906년 5월에는 손

병희가 천도교(天道敎)¹⁵⁾를 분리하기로 결정하였고¹⁶⁾ 같은 해 9월에 손병희는 일진회의 간부 대다수를 천도교에서 제명하고 천도교와 일진회의 분리를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또한 이용구는 1906년 12월에 시천교를 창설하였다. 이후 분리된 천도교는 종교 활동에 전념하였는데 그 당시 손병희를 교주로 삼은 많은 회원들이 이 때 탈퇴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¹⁷⁾

이 시기의 일진회는 러일전쟁 때 일본군에 대한 협력 및 기타 사업으로 말미암은 재정난을 겪고 있었고, 1906년 8월에는 옥새도용 혐의를 받고 있던 이일식(李逸植)을 은닉했다는 이유로 송병준이 체포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결성 이래 최초의 수라장을 맞이하였다.

(3) 우치다, 이토와의 인연과 정계 진출

일진회가 궁지에 몰린 가운데 그들에게 먼저 접근한 사람이 흑룡회(黑龍會) 주幹이자 나중에 통감부 촉탁이 될 우치다 료헤이(内田良平)였다. 1906년 3월에 한국통감으로 취임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우치다는 일진회에 대한 원조를 권하였다.¹⁸⁾ 이토에게서 일진회의 내정(内情) 조사를 명령 받은 우치다는 1906년 9월 이용구에게 송병준 구제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 달에는 송병준이 석방되었다. 그리고 같은 달 우치다는 일진회 고문이 되었다. 당시 일진회는 재정난에 처해 있었지만, 이 시기의 통감부는 “일진회에 상당한 이용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¹⁹⁾ 그러므로 일진회는 자금을 지원 받는 것을 성공하였다.²⁰⁾ 같은 달 이토는 이완용(李完用) 내각을 출범시켰다. 통감부는 당시 조선에서 반정부, 배일(排日) 기운이 계속 고조되는 四面楚歌 상태였으며,²¹⁾ 일진회가 그 궁지를 타개하기 위해 반일 단체와의 연합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토는 일진회의 “곤궁 상태를 간파하여”²²⁾ 친일 세력으로서 일진회의 힘을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고, 이완용 내각 및 통감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송병준을 농상공부대신(農商工部大臣)으로 발탁하였다. 송병준 입각과 함께 이 시기 많은 일진회 회원들이 官界로 진출하였고 “일약 정치 단체로서 전성기를 맞이” 하였다.²³⁾ 일진회원의 정부 관리 임명 상황을 보면 1905년에는 군수 1명뿐이었던 것이 1906년에는 관찰사 1명, 군수 4명이 임관되었고, 최성기인 1907년에는 관찰사 4명, 군수 16명을 자랑하였다. 1908년은 관찰사 1명, 군수 5명이 임명되었다.²⁴⁾

(4) 이토와의 결별

한편, 일찍이 한국병합을 주장해 온 우치다는 병합은 시기상조로 보던 이토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고, 또 통감 정치의 실패를 느끼고 있었다. 우치다는 한국이 병합될 것을 예상하며 1907년 2월경 일진회의 “정치색을 불식시키고”²⁵⁾ 활동 방향을 경제 방면으로 전환시키려 하였다. 같은 해 8월에 우치다는 이토에게 이를 제안하고 동의를 받아 50만엔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우선 10만엔만 지급하게 되었다.²⁶⁾ 이에 불만을 품게 된 이용구를 비롯하여 이후 일진회 지도부는 가쓰라 타로(桂太郎)나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와 같은 이토 외의 일본 원로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일진회는 이완용 내각에 대해서도 불만을 품고 있었으나 송병준이 내각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내각을 규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우치다는 송병준이 사임해야 이토를 사임으로 몰아붙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 생각하여 1908년 5월경 이것을 계획하였다. 송병준은 이토에게 사임을 제의했으나 이토는 이를 받아들이면 통감 정치가 붕괴될 거라고 판단하여 이완용 등에

게 송병준에게 사죄하도록 지시한 뒤 같은 해 6 월에는 송병준을 내부대신으로 임명하였다.²⁷⁾ 그러나 제 3차 한일협약 이후의 대신 자리는 이름뿐이었고 실상 일본인 차관이 실권을 잡고 있었다. 이 때 이토는 이미 일진회보다 “더 이용 가치가 있” 고 “일본을 배신할 수 없는 가장 믿음직한 친일 세력” 을 내각에서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²⁸⁾ 그리고 이토는 일진회 지방 회원의 횡포가 의병 운동을 자극하고 있다고도 생각하여 “일진회의 세력 신장이 일본의 한국 지배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다”²⁹⁾ 고 인식하였다. 결국 1909 년 2 월에 송병준의 사임이 허락되었지만 그 무렵에는 이토도 이미 일진회를 포기한 상태였다.

(5) 한일 합방 청원서의 제출

일진회는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통감부에서 버림받았으며, 이완용 내각에서는 배제 기회를 계속 노리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³⁰⁾ 1909 년 6 월에 이토는 통감을 사임하고 소네 아라스케 (曾禰荒助) 가 후임이 되었으며 7 월에는 '한국 병합에 관한 건' 이 각의 결정되었다. 일본의 병합이 점차 현실화되고 병합에 대한 위기감이 일반화되자 일진회는 排日을 표방하는 다른 단체와 이완용 정권 타도를 공통된 목적으로 삼아 한때 협력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三派提携). 10 월에 이토가 하얼빈에서 암살당하자 일진회는 이를 계기로 “원래 계획인 한일합방을 단행” 하도록 시동하였다.³¹⁾

같은 해 12 월 4 일에 일진회는 한국 황제, 내각, 통감부로 3 통의 합방 청원서 (合邦請願書) 를 제출하고 한 통의 성명서 (聲明書) 를 발표하였다. 청원서와 성명서에는 우치다와 이용구 사이에 합방 형식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합방 청원서는 그 계획부터 작성까지 일본 측의 의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청원서의 기본 논리 구조는 동일하며 한국은 “더 이상 국가의 형식을 갖추지 않다” 고 서론한 뒤 “①優勝劣敗 ② 東亞의 평화 ③ 한일의 道祖同文” 을 언급하면서 한일 합방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³²⁾ 한편 성명서에는 이용구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성명서에도 청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 황실의 보전과 한국 국민의 일본 국민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 대우” 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政合邦' 이라는 방법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청원서와는 달랐다.³³⁾

세 통의 청원서는 세 번 받기를 거절당하다가 마침내 12 월 16 일에 네 번째로 제출했을 때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여러 번 청원서 제출을 거절당한 까닭은 ‘早期 병합론자’ 인 야마가타 아리토모 (山縣有朋) 와 데라우치가 청원서를 받는 것에 난색을 드러내던 카쓰라를 설득하여 소네에게 청원서를 받아들여도록 설득했기 때문이다. 데라우치가 의도한 바는 “청원서를 통해 병합이 한국인의 자발적인 것이라는 인상을 대내외에 심어주는 것” 이었다는 지적이 있다.³⁴⁾ 데라우치는 “한국 여론에서 합방이 정치 문제가 되는 것을 우려”³⁵⁾ 했기 때문에 그 허용 범위는 “청원서를 받는 선까지” 였으며 “일진회의 청원서를 이용해서 한번에 병합을 진행시키려는 생각”³⁶⁾ 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이듬해 8 월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되면서 한국은 일본에 병합되었다. 그리고 9 월 12 일에 일진회는 해산 명령을 받아 25 일에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II. 선행연구

일진회에 관한 연구는 1960 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우선 한일 병합 역사의 틀에서 일진회를 언급한 것은 야마베 겐타로 (山辺健太郎) 였다. 야마베는 “일진회의 '日韓合邦論' 은 송병준과

이용구의 정치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조선인들의 의사를 하나도 대표하지 않" 았으며, 일진회의 합방 청원서 제출이 없더라도 "일본의 조선 병합 방침은 일찍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고 하였다. 일진회가 일본의 정책 결정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과 동시에 그 존재를 과소 평가하였다. 게다가 야마베는 일진회를 "실체가 없는" 단체라고 규정하기까지 한다.³⁷⁾ 이는 당시의 사료상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야마베의 견해는 일찍부터 비판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서도 일진회 연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04년에 일진회가 등장한 무렵, 조선의 주권이 일본에 의해 빼앗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인들은 국권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거기서는 크게 의병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일진회는 이것과 어울릴 수 없는 매국 단체이자 반민족 단체로 간주되어 왔다. 각종 운동 단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일진회 활동의 전체상을 최초로 표출해 낸 것이 조항래(趙恒來)의 일련의 연구이다.³⁸⁾ 조항래는 일진회를 실체로 존재한 조직으로 인정하고 야마베의 주장을 반박한다. 조항래의 기본 입장은 일진회와 그 주변 단체들이 일본의 '앞잡이' 였다는 것이다. 일본 군부가 파견한 일본인 고문이 "그 배후에서 항상 조종하고 있었"³⁹⁾ 으며, 일진회의 활동에서 일본인(고문)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일진회와 애국운동이 맺어질 여지는 없었다.

이것에 대해 일부 의문을 제기한 것이 형문태(邢文泰)이다.⁴⁰⁾ 형문태는 일진회를 "동학 운동이 갑오개혁에서 3.1 독립운동으로 계승되는 과도기에 만난 운동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의 "학회의 통설", 즉 "일진회와 진보회는 별개의 단체로써 나타났으며 특히 손병희를 포함한 동학 정통파는 일진회의 조직과 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소박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견해"를 비판한다. 그리고 이 두 단체가 "처음으로 생겨났을 때부터 친일을 표방한 동일 성격의 異名同體"임을 밝혔다.⁴¹⁾ 다만 천도교와 분리되기 전에는 손병희에게도 친일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결론 짓는 점에서 일진회는 결국 단죄되어야 할 친일 단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일진회의 친일 매국적 성격이 당위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일진회 연구는 정체되고 말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주변적 연구 성과가 일진회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일본에서는 흑룡회(黑龍會)에 관한 연구 혹은 이용구에 대한 연구, 한국에서는 동학과 진보회 운동의 의의에 대한 연구 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일진회 관련 자료가 발굴되며 일진회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흐름 속에서 80년대에 들어서면 지금까지 일진회에 규정된 수동적 성격에서 그들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등장하였다. 이양(李亮)은 일진회를 시종일관 '병합 추진 단체'로 보는 연구 경향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여 일진회 지도부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가운데, 일진회가 일본의 대한(對韓) 정책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밝혔다. 합방청원서 제출은 당시 그들이 겪고 있던 곤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을 설명하면서 '합병'(合併)과 '합방'(合邦)을 구분하여 양자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였다.⁴²⁾

90년대에 들어가면 일진회 관련 자료 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일진회 연구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김동명(金東明)은 이러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료적 제약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일진회의 주체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김동명

은 특히 '政合邦' 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논하며 이용구와 우치다의 합방에 관한 견해차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김동명은 이처럼 일진회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진회의 친일적 활동이 결과적으로 반일 세력을 무너뜨리게 된 점과 당시 한국에서의 국권회복 및 주권 국가 수립이라는 역사적인 과제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점을 들어, 결과적으로 일본의 정책에 협력하게 된 일진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⁴³⁾

또한 이 시기의 하야시 유스케의 일련의 작업은 현재 일본에 있어서 일진회의 연구 지표이다.⁴⁴⁾ 일련의 연구는 이양의 연구를 보다 실증적으로 심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야시는 일찍이 동학농민전쟁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사람들이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친일' 이라 불리는 일진회 회원이 되는 흐름을 동학의 '변절' 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대일(對日) 인식의 변화에서 찾아냈다.⁴⁵⁾ 그리고 일진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매국노로 매도 당하면서도 왜 당시 최대 규모의 단체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⁴⁶⁾ 나아가 친일 단체라는 관심사에서 한 걸음 물러서 조선 민중사 속에 일진회를 자리매김하려고 하였다.⁴⁷⁾ 그러나 일진회 중앙부의 동향에 치우쳐 있으며 지방 회원들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이 일부 아쉬움으로 남았다.

2000 년대에 들어서 이러한 과제에 호응하는 연구, 즉 한국에서는 김종준(金鐘俊)⁴⁸⁾, 미국에서는 Yumi Moon⁴⁹⁾ 의 일련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일진회 지방 회원의 동향을 주목하여 일진회가 기록한 자료 혹은 조선 왕조 관련 자료인 '각사등록'(各司謄錄) 을 다루었다. 일진회와 갈등 관계를 보이는 지방 관리의 기록, 또는 일진회 회원에게 불만을 가진 민중들의 정부에 대한 소장을 인용하면서 지방 일진회의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되었다. 특히 일진회의 징세권 관여를 거론하여 징세를 둘러싼 다툼이 지방에서는 어느 시절부터 '작폐' 로 규정되어 가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김종준은 특히 일진회와 향촌 사회의 관계성에 착안하여 조선시대에도 중앙 지배층이 "재지사족과의 타협을 통해 향촌 지배를 실현해 왔" 던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일진회의 "관권에 대한 도전은 향촌 지배층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였" 던 것을 지적하였다.⁵⁰⁾ Moon 은 서북 지역과 충청도를 중심으로 지방 회원의 동향을 쫓았다. 그 분석틀로서 Moon 은 歐美의 이론을 도입하면서 일진회의 정치 운동에 '포퓰리즘'(populism) 의 특징을 찾아낸 점에서 독자성을 보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진회의 종교적 측면 혹은 교육 사업에 특화된 나가시마 히로키(永島広紀) 의 연구,⁵¹⁾ 그리고 '政合邦' 을 '小國思想' 으로서의 아시아주의 맥락에서 서술한 오가와라 히로유키(小川原宏幸) 의 연구⁵²⁾ 등 주목할 만한 개별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자료 간행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겠다. 한글로 번역된 '각사등록' 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에서 2004 년부터 간행되어 왔다가 2016 년에 전권 간행을 마쳤다. 또한 '원한국일진회역사'(元韓國一進會歷史) 는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현재 열람할 수 있다. 자료 입수 장벽이 낮아짐으로써 앞으로도 일진회 연구의 축적이 기대되는 바이다.

인용 자료 :

- 1) 1904년 8월에 유신회가 결성된 다음 1904년 10월에 진보회가 결성되었다. 유신회는 결성 후 이들 만에 일진회로 개명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진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합동 전에는 일률적으로 진보회라 부르기로 한다. 하야시 유스케(林雄介)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 합동 전의 일진회를 "원초(原初) 일진회"라 부른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원초 일진회'라는 이름으로 거의 통일되어 있다.
- 2) 林雄介 「一進會の前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まで」 『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1997, pp. 496~498. 이들은 일진회를 말하는데 있어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두겠다. 손병희는 1897년에 동학 제3대 교주가 되었다. 동학은 손병희 때 천도교(天

- 道敎)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는 또한 3·1 독립운동 지도자 중 한 명이었다. 이용구는 동학 제 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의 제자이자 손병희와는 동문제자이다. 동학농민전쟁 당시에는 농민군을 이끌고 일본군에 대항하였다. 1906년에는 시천교(侍天敎) 교주가 되었다. 송병준은 한때 김옥균(金玉均) 암살 명령을 받아 일본에 갔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신변의 위험을 느껴 일본으로 망명하였고 러일전쟁 때 일본군의 통역으로 한국에 귀국하였다. 송병준이 유신회 결성을 독려했었다고 한다.
- 3) 金東明「一進會と日本——「政合邦」と併合」『朝鮮史研究会論文集』31, 1993, pp. 100, 101.
 - 4) 林雄介「一進會の前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まで」『朝鮮社会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1997, p. 496.
 - 5) 林雄介「運動団体としての一進會——民衆との接触様相を中心に」『朝鮮学報』172, 1999, pp. 56, 57.
 - 6) 林雄介「運動団体としての一進會——民衆との接触様相を中心に」『朝鮮学報』172, 1999, p. 57.
 - 7) 林雄介「一進會の前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まで」『朝鮮社会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1997, p. 496; 金東明「一進會と日本——「政合邦」と併合」『朝鮮史研究会論文集』31, 1993, p. 100.
 - 8) 정치 활동 중 연설에서 주장되었던 것은 황실 보전, 내정 쇄신, 舊弊 배제, 위생 의식의 환기, 교육의 중요성 등이었다(永島広紀「一進會の活動とその展開——特に東学・侍天敎との相関をめぐって」『年報朝鮮学』5, 1995, p. 64).
 - 9) 林雄介「一進會の前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まで」『朝鮮社会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1997, pp. 505~509.
 - 10) 林雄介「運動団体としての一進會——民衆との接触様相を中心に」『朝鮮学報』172, 1999, pp. 45, 46.
 - 11) 한편 일진회 스스로가 기술한 바에 의하면 회원수는 100만 명을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조선 인구(1904년 당시의 조선인 남성 인구 수는 약 686만명)를 감안하면 정합성이 낮은 것이 지적되고 있다(李亮「対韓政策の一側面——一進會の位置」『九州史学』84, 1985, p. 57). 참고로 일부 역사 수정주의자도 이와 같은 일진회 회원 ‘백만명설’을 지지하지만 이것은 조선 민중 대다수가 한국 병합을 지지하였다는 설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12) 永島広紀「一進會の活動とその展開——特に東学・侍天敎との相関をめぐって」『年報朝鮮学』5, 1995, pp. 18~22.
 - 13) 林雄介「一進會の前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まで」『朝鮮社会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1997, p. 511.
 - 14) 李亮「対韓政策の一側面——一進會の位置」『九州史学』84, 1985, p. 58.
 - 15) ‘천도교’란 1905년 12월에 손병희가 동학을 개명한 것이다(永島広紀「一進會の活動とその展開——特に東学・侍天敎との相関をめぐって」『年報朝鮮学』5, 1995, p. 74).
 - 16) 李亮「対韓政策の一側面——一進會の位置」『九州史学』84, 1985, p. 61.
 - 17) 林雄介「一進會の前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まで」『朝鮮社会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1997, pp. 514, 515.
 - 18) 또한 우치다를 이토에게 추천한 것은 스키야마 시게마루(杉山茂丸)이다. 그들은 “이민족 지배 자체의 정당성을 전혀 의문시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며(初瀬龍平『伝統的右翼内田良平の研究』九州大学出版会, 1980, p. 97) 그 조선 통치 구상은 “천황제 지배와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小川原宏幸「一進會の日韓合邦請願運動と韓国併合——「政合邦」構想と天皇制国家原理との相克」『朝鮮史研究会論文集』43, 2005, p. 193).
 - 19) 林雄介「一進會の後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解散」『東洋文化研究』1, 1999, p. 268.
 - 20) 1907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통감부에서 월마다 2,000엔씩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것을 시작으로 5월에는 우치다의 알선으로 옥군 기밀비 10만엔이 지급되었다(林雄介「一進會の後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解散」『東洋文化研究』1, 1999, pp. 265~270).
 - 21) 李亮「対韓政策の一側面——一進會の位置」『九州史学』84, 1985, p. 65.
 - 22) 金東明「一進會と日本——「政合邦」と併合」『朝鮮史研究会論文集』31, 1993, p. 104.
 - 23) 林雄介「一進會の後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解散」『東洋文化研究』1, 1999, p. 270.
 - 24) 李亮「対韓政策の一側面——一進會の位置」『九州史学』84, 1985, pp. 65, 66. 당시 관찰사는 전국에 13명이 배치되었다.
 - 25) 林雄介「一進會の後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解散」『東洋文化研究』1, 1999, p. 271.
 - 26) 林雄介「一進會の後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解散」『東洋文化研究』1, 1999, p. 273.
 - 27) 林雄介「一進會の後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解散」『東洋文化研究』1, 1999, p. 274.
 - 28) 李亮「対韓政策の一側面——一進會の位置」『九州史学』84, 1985, p. 70.

- 29) 李亮「対韓政策の一側面——一進会の位置」『九州史学』84, 1985, p. 71.
- 30) 李亮「対韓政策の一側面——一進会の位置」『九州史学』84, 1985, p. 72.
- 31) 林雄介「一進会の後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解散」『東洋文化研究』1, 1999, pp. 278, 279.
- 32) 小川原宏幸「一進会の日韓合邦請願運動と韓国併合——「政合邦」構想と天皇制国家原理との相克」『朝鮮史研究会論文集』43, 2005, pp. 189, 190.
- 33) 小川原宏幸「一進会の日韓合邦請願運動と韓国併合——「政合邦」構想と天皇制国家原理との相克」『朝鮮史研究会論文集』43, 2005, p. 190.
- 34) 李亮「対韓政策の一側面——一進会の位置」『九州史学』84, 1985, pp. 73, 74.
- 35) 小川原宏幸「一進会の日韓合邦請願運動と韓国併合——「政合邦」構想と天皇制国家原理との相克」『朝鮮史研究会論文集』43, 2005, p. 199.
- 36) 林雄介「一進会の後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解散」『東洋文化研究』1, 1999, p. 281.
- 37) 山辺健太郎『日韓併合小史』岩波書店, 1966, pp. 230, 231, 234.
- 38) 趙恒來「日本の 対韓侵略政策과 舊韓末 親日團體 : 一進組織過程의 時代的 背景과 그 活動相」『東洋文化』10, 1969 ; 『韓末社會團體史論攷』瑩雪出版社, 1972 ; 『一進會 研究』중앙대학교 대학원박사논문, 1984 ; 趙恒來「一進會의 背後關係」『論文集』28, 1988, 외 .
- 39) 趙恒來「一進會의 背後關係」『論文集』28, 1988, pp 365, 366.
- 40) 邢文泰「一九〇四・一九〇五年代 東學運動에 대한 一考究——一進會・進歩會를 中心하여」『史學論志』4・5合集, 1977.
- 41) 邢文泰「一九〇四・一九〇五年代 東學運動에 대한 一考究——一進會・進歩會를 中心하여」『史學論志』4・5合集, 1977, pp. 58, 59.
- 42) 李亮「対韓政策の一側面——一進会の位置」『九州史学』84, 1985.
- 43) 金東明「一進會と日本——「政合邦」と併合」『朝鮮史研究会論文集』31, 1993.
- 44) 林雄介「一進會の前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まで」『朝鮮社会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1997 ; 「一進會の後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解散」『東洋文化研究』1, 1999 ; 「運動団体としての一進會——民衆との接触様相を中心に」『朝鮮学報』172, 1999, 외 .
- 45) 林雄介「19世紀末、朝鮮民衆の対日認識について」『朝鮮史研究会論文集』33, 1995.
- 46) 林雄介「運動団体としての一進會——民衆との接触様相を中心に」『朝鮮学報』172, 1999.
- 47) 林雄介「一進會の前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まで」『朝鮮社会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山川出版社, 1997 ; 「一進會の後半期に関する基礎的研究——1906年8月～解散」『東洋文化研究』1, 1999.
- 48) 김중준「一進會 支會의 활동과 鄉村社會의 동향」, 서울大學校 大學院석사, 2002 ; 「대한제국 말기 (一九〇四～一九一〇년) 一進會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 2008.
- 49) Yumi Moon "The populist contest : the Ilchinhoe movement and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1896-1910" Harvard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6 ; "Populist collaborators : the Ilchinhoe and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Korea, 1896-1910" Cornell University Press, 2013. (일본어 번역 : 赤阪俊一他訳『日本の朝鮮植民地化と親日「ポピュリスト」: 一進會による対日協力の歴史』明石書店, 2018.)
- 50) 김중준「一進會 支會의 활동과 鄉村社會의 동향」, 서울大學校 大學院석사, 2002, p. 213.
- 51) 永島広紀「一進會の活動とその展開——特に東學・侍天教との相関をめぐって」『年報朝鮮学』5, 1995 ; 「一進會立「光武学校」考」『朝鮮学報』178, 2001.
- 52) 小川原宏幸「一進會の日韓合邦請願運動と韓国併合——「政合邦」構想と天皇制国家原理との相克」『朝鮮史研究会論文集』43, 2005.